

## 권두에세이 ○ 새롭고 힘있게 정진하겠습니다.



희망의 壬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新年에는 우리 2백만 충남인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하시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금년은 壬午年 '말의 해'입니다. 말은 12支干 中 7번째 동물로서 인류의 발달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인간의 곁에서 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말의 상징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역동성과 생동감입니다.

전쟁터에서 말은 제일 먼저 나아가 적과 대치하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말은 가만히 있다가도 움직일 때면 온 힘을 다해 뛵니다. 목표가 설정되면 주저함이 없이 앞만 보고 전력으로 질주합니다. 우리가 말에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원도 금년 한해를 말처럼 최선을 다해 새롭고 힘있게 정진하고자 합니다. 지난날의 어려움을 디딤돌로 삼고 세계 속의 경쟁력 있는 충남을 열어가는 THINK TANK로서 명실상부한 지역연구기관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충청남도를 비롯한 도내 15개 市·郡이 전국에서 가장 행정을 잘 펼칠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동안의 수동적인 연구활동보다는 능동적인 정책과제의 발굴과 창의적인 연구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研究院은 충남을 발전시키고 충남인을 위하여 不撤晝夜 연구활동에 매진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2백만 충남도민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研究院의 존재이유는 2백만 충남 道民이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여유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우리 충청남도는 서해안시대가 전개됨에 따라 재도약의 好期를 맞았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풍부한 역사자원과 발전잠재력을 갖고있는 內浦圈이 부각되고 있으며, 그 동안 국토발전의 중심이었던 京釜軸이 西海岸軸으로 이동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환황해권의 중심지역인 충청남도는 지방주도의 지역발전을 이루어냄과 동시에 국토의 균형발전을 선도할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세상은 하루가 달리 빠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 혁신하는 사람이나 조직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모든 것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안목과 혜안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연구원도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면서 충남도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긴 안목을 가지고 수요자 중심의 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백만 충남도민 여러분!

금년에도 소원하시는 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 연구원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2월

충남발전연구원장

정 롱 환